

국내에서 처음 발견된

닭의 스팔가눔증

김 영 섭
(서울시립농대기생충학교실)

이 스팔가눔(孤虫) 기생충은 국내에 있어서 인체 감염에는 20여예가 보고되고 있으며, 가축으로 부터는 한우의 근육에서 60여마리(新美 등, 1941)와 돼지에서 5예(張, 1964)가 보고되었다.

이 스팔가눔은 개, 고양이와 소장에 기생되는 만손 열두촌충의 애기벌레(幼虫)인 스피로메트라 속(屬)의 것으로, 이 애기벌레는 제2중간숙주인 개구리, 뱀, 돼지, 고양이, 닭, 여우, 쥐, 족제비, 너구리, 사 람등에 먹히게되며 발육되는 것이다.

외국에 있어서 닭에서의 기생예는 여러 보고가 있으나,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발생보고가 없다.

그러나 이번에 모 시장 일반도계처리장의 도계에서 대형(50cm)의 스팔가눔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닭의 복강내에서 발견되었다.

사람에 있어서는 근래에 처녀 뱃속에서 50cm의 스팔가눔이 발견되어 신문지상에도 알려진 바 있으나, 이번에 닭으로부터 발견된 스팔가눔도 같은 길이와 형태가 비슷하다.

원 인

닭에 감염되는 원인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사양관리 방법과 음료수 공급의 두가지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수있다. 즉 닭의 사양관리에 있어서 소규모 및 일반 가정사육에 있어 야외 방사로 하여금 제1중간숙주인 「물벼룩」 「감충류」가 들어있는 더러운 민물을 먹게되거나, 또는 물벼룩이 들은 민물을 양계 음료수로 사용되거나, 제2중간숙주인 개구리, 올챙

이 등을 생으로 닭에 주거나 또는 잡아먹음으로서 닭에 감염되는 것이다.

증상 및 피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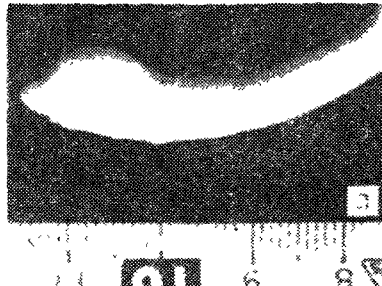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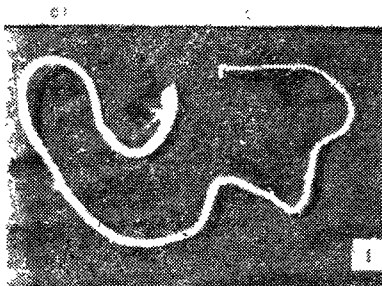
닭에 있어서 이 스팔가눔이 감염되어 있어도 임상적으로 증상을 알 수가 없으나, 이 기생충이 감염되면 성장증의 부러일러에 있어서는 증체량의 감소를 일으키며 산란하는 성체에 있어서는 산란감소와 복수, 통증으로 거동이 불안하게 된다. 그 밖에도 닭의 저항력의 감퇴로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게된다.

예방 및 치료

이 기생충병은 진단이 곤란하며, 만약에 이 스팔가눔이 의심되면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여 총체를 적출(摘出) 하는것이 좋으나, 닭에 있어서는 수술비용과 닭값과의 관계로 축주가 원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다.

그러나 이 기생충병을 예방하려면 첫째로 더러운 민물(개울물, 연못물, 도랑물)을 닭에다 급수시키지 말 것이며, 둘째로는 개구리 및 올챙이를 날로 먹이지 말 것이고, 셋째로는 닭을 옥의 방사를 시키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민물의 감충류를 먹게되기 때문이다. 대규모 양계장에 있어서는 개울물을 이용하여 급수시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.

(이 내용은 1972년 10월 21일 개최되는 대한수의학회 16차 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할 요지를 먼저 양계가에게 알립니다.)



<사진설명> 닭의 복강에서 발견된 스팔가눔.

① 이것은 전체의 모양이며, 길이가 50cm의 대형의 총체이다.

② 앞쪽 머리는 마치 뱀머리 같이 생겼으며 직경이 9mm이었다. (저자원도)